

# 나주시 500만 관광도시 실현 박차

다음 달 26일 나주방문의 해 선포  
숙박 인센티브 등 머무는 관광 전환  
안세영·안유성 등 홍보대사 위촉

나주시가 2026년을 ‘나주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숙박과 관광,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전략을 본격 추진해 5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관광객들이 당일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머무르며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숙박 인센티브와 관광 콘텐츠, 연중 축제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계한 방문의 해 핵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오는 2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며 선포식에서는 방문의 해 비전 발표를 비롯해 홍보대사 위촉, 관광 관련 기관과의 나주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보대사로는 나주 영산포 출신의 세계적인 배

드민터 전수 안세영, 나주 남남면 출신으로 드라마 ‘자이언트’와 ‘지붕뚫고 하이킴’ 등으로 사랑을 받은 배우 정보석,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이자 흑백요리사 시즌 1에 출연했던 안유성 셰프가 위촉돼 나주 관광 홍보에 힘을 보탠다.

대표 체류형 관광 사업으로는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나주 1박 2득’을 운영하며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관의 개별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여행의 만족과 실질적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취지다.

인센티브는 동행 인원에 따라 2~3인은 5만원, 4~5인은 10만원, 6인 이상은 13만원을 지급하며 아동 동반 시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업은 시스템 구축과 사전 점검을 거쳐 2026년 3월 1일 이후 숙박한 여행분부터 인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세부 기준은 2월 중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현장 지급과 온라인 지급으로 이원화시켜 현장 지급은 나주사랑상품권 지류형으로 제공해 여행 중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즉시 이어지

도록 유도했으며 온라인 지급은 ‘나주몰’ 사용 포인트로 지급해 방문 이후에도 나주 농특산물 소비가 이어지도록 구성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특히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 동반 추가 지원과 연계한 가족 관광 활성화에도 나서며 한 달간 아동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키즈관광 특화공간을 조성해 체험형 콘텐츠와 포토존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주방문의 해’를 주제로 한 솟품 영상 경진대회 추진을 통해 관광객이 직접 나주의 관광명소와 축제, 체험 콘텐츠를 촬영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확산 효과를 높이고 시민 참여형 홍보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6 나주방문의 해는 단기간 이벤트가 아닌 나주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을 도시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고 문화와 산업, 생활이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이 기후와 자연재난에 따른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후대비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강진군 제공>

## 강진군, 노후 하우스 ‘내재해형’으로 바꾼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개선 추진

단동→연동 전환 구조 보완 지원

강진군이 급변하는 기후와 자연재난에 따른 농업재해를 줄이고 농산물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비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폭염과 집중호우, 강풍, 폭설 등 이상기후가 해마다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에 취약한 노후 비닐하우스를 구조적으로 보강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농경경영체에 등록된 시설원에 재배 농가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하우스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진군 기준 내재해형 조건은 적설 24cm, 풍속 34m/s 수준이다.

단동형 하우스를 연동형으로 전환하거나, 축고 인상, 천장 및 측면 개폐시설 설치 등 통풍과 열기 배출이 원활하도록 구조를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설물의 내재해 성능 자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총 2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재원은 군비 50%, 자부담 50%로 구성된다.

운영팀 강진군 농정과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기존 비닐하우스 구조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기획했다”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보조사업을 통해 강진 농업의 기후 대응력을 높이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 2027년 국고 건의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



지난 21일 이상의 합평군수 주재로 ‘2027년 국고 건의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합평군 제공>

## 합평군, 내년 국비 확보 시동…953억원 건의

국고 건의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

합평군이 2027년도 국비 확보를 목표로 주요 현안 사업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합평군은 최근 ‘2027년 국고 건의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농업·관광·정주 여건 개선 등 군정 주요 현안과 연계한 국고 건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42건, 총사업비 5675억원 규모의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추진 논리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국비 건의 규모는 953억원에 달한다.

2027년도 신규 국고 건의 사업으로는 ▲합평 빛그린 미래 모빌리티 상생 혁신거점 구축(200억원) ▲합평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140억원) ▲평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31억원) 등 18건이 포함됐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생

장 기반 확충과 신산업 육성, 재난·재해 예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계속사업으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원 건립(424억원)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71억원) ▲주포항 생활권 여촌신활력 증진사업(100억원) 등 24건이 반영됐다. 군은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평군은 이번에 발굴한 국고 건의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스마트 농축산업 기반 강화,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지역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정부 예산안 반영과 국회 심의 단계 증액까지 전방위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1000명 돌파

상반기 중 주거비 지원도 추진

장성군이 민선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지난 2023년부터 대학생 가정의 학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등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납부액을 학기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올해 들어선 2025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을 완료하며, 누적 지원 1000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기존 등록금 지원사업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대학생 주거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보호자 모두 3년 이상 장성군에 살고 있는 가정의 학생이며, 대학 학제 기준 마지막 학년 재학생(4학년, 30세 이하)에게 월세·기숙사비 실비를 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거주요건 완화

화순군이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해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으며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아동 1인이 받을 수 있는 총지원 금액은 432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 요건(유지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 출생신고일 이후 전남 내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아와 보호자 중 1명만 전남 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청 시점에 출생아와 보호자 2인 모두 전남 또는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기본소득은 생후 11개월부터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령·순천갯벌

###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면적	한계 (㎡)	유산지역 (㎡)	원종구역 (㎡)
총면적(㎡)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령·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52%를 차지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갯벌 위의 수채화



새들의 휴식처인 사취와 일반서식지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취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종도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층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갯벌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름을 싸움, 염낭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평둥어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업날개



염생식물의 역할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대 체험 수업 현장!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대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대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